

생산자 주도의 육계계열화 기업 탄생

부산·경남지역 (주)부경 설립

생산자가 주도하는 육계계열화의 계열주체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전북양계조합이 육계사업소를 개설한 데 이어, 부산·경남지역에서도 계열화를 위한 (주)부경이 탄생하였다.

(주)부경은 부산·경남지역 육계생산자 80여명이 모여 만든 생산자가 주도하는 계열주체이다. (주)부경이 지난 5월 9일 부산 구포동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계열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됨으로써 계약 생산자와 계열주체간에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해

결하고자 생산자 주체의 계열화사업을 전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육계산업 발전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기업주도의 계열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생산자와 계열주체간에 계약 사육비나 성과금 문제 등으로 마찰이 종종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육계생산자들은 기업주도 계열주체의 종업원 정도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 때문에 생산자들이 주도하는 계열주체가 탄생하여 기업주도의 계열주체와 경쟁을 통

□ 취재/권동원 기자

해서 생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열화가 추진되도록 유도되길 기대해 왔다.

지금까지는 제주가금처리장의 생산자들이 모여 계열화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특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양계조합이 육계계열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몇년째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지역의 (주)대경은 생산자와 상인들이 도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계열화를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열화는 육계산업 각 단계별의 불필요한 원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화, 계획생산이 가능하여 기존의 생산체계보다는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계열주체의 원가절감으로 인하여 일반 사육자들은 계열주체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닭고기 수입 개방시 기존의 생산체계로는 가격과 품질경쟁이 불가능하고 계열화 생산으로만 외국 닭고기와 경쟁을 할 수 있어 생산자가 타의에 의해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열주체와 대등한 계약관계로 맺어진다고 하지만 수직계열화 체계에서는,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반종속적인 관계로 비취짐으로써 생산자의 위치가 격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가격안정이 가능해져 가격폭락시 위험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투기성에 가까운 풍토에 익숙한 육계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가격폭등이라는 매력이 없어지므로 내심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일부 사육자들의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 계열주체가 기존사육자와의 계약을 선호하지 않고 신규업자를 양성함은 물론 계약농가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육계생산자들은 계열화를 매력적인 체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계열화를 선호하는 사육자와 기피하는 사육자가 있지만 계열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생산자가 주도하기 위한 계열주체의 탄생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주)부경의 역사는 지난 88년부터 시작되었다. 88년초 부산·경남지역 육계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구체적인 단계까지 접근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89년 말부터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료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주)부경을 탄생시켰다. 아직 초기단계이나 부산·경남지역 육계인들의 탄탄한 조직력이 바탕이 되고 있어 완전계열체계 구축은 어렵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주도 계열화 형태의 특이한 점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기업주도의 계열화에 맞서기 위해 생산자들이 직접 기업을 만든 점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우리나라 육계인들의 거시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계열화는 대규모 부

화장에서 도계장을 소유하고 도계장 중심의 계열화를 추진하는 업체와 순수 도계장 중심의 계열화, 유통을 담당하던 외식업체 중심의 계열화, 육계 사육자가 생산을 중심으로 시작한 기업계열주체 등에서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회사, 외국계열화업체 등 대기업에서도 육계계열화 사업진출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기업주도의 계열화이며 여기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 주도의 계열화가 시작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리라 예상된다.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만든 기업, 계열화에 대한 생산자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건전한 계열화로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 수입개방 시대에 생산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육계생산자들이 거는 기대이다. **양계**